

인권정보자료실
Mm1.6

자료집

한국-제주동포 대학생 동포체험여행 2002
“이제 서로를 동포라 부르자”

주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2002. 8. 9 ~ 2002. 8. 17
아시안
아시안
아시안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공동대표 : 이해동 · 채수일 · 이정옥 · 변연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 2층

Tel : 3675-5808 ~ 10, Fax : 3673-5627, E-mail : khis21@nownuri.net, Web-page : www.khis.or.kr

인권정보자료실
Mm1.6

한국-제주동포 대학생 동포체험여행 2002
“이제 서로를 동포라 부르자”

주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2002. 8. 9 ~ 2002. 8. 17
아시아 인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공동대표 : 이해동 · 채수일 · 이정옥 · 변연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 2층

Tel : 3675-5808~10, Fax : 3673-5627, E-mail : khis21@nownuri.net, Web-page : www.khis.or.kr

목 차

1. 프로그램 소개 3
2. 프로그램 일정 4
3. 조선족의 역사와 삶 - 이남주 5
4. 새 천년에도 2백만 조선족 사회는 존속할 수 있을까?
- 계광현 13
5. 그들을 동포라 부르지 말자 - 이광조 16
6. 배움을 갈망하는 두만강의 동포 아이들 - 이유진 . . . 19
7. 여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22

프로그램 소개

◆ 취 지

중국에는 현재 연변, 심양, 하얼빈 등을 중심으로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약 2백여 만명의 재중 동포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일제시대에 고국을 떠난 1세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재중동포들은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생활태도로 인해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 비교적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 왔다.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많은 재중동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지역공동체도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두 가지가 학생 수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민족교육의 붕괴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직접 재중동포들의 삶과 현실을 접해 봄으로써 재중동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가 전체 기획과 준비를 맡았고, 한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계절학기 과목으로 개설해 단체로 참가하였으며, 그 외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였다. 또, 연변 현지에서는 재중동포들의 환경단체인 연변 녹색연합회에서 전체 일정을 정하고, 여행 전반에 관한 실무적인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일부에 대해 지원을 해준 (사)시민운동지원기금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주 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현지 협력 : 연변 녹색연합회

◆ 후 원 : (사) 시민운동지원기금

◆ 일 정 : 2002년 8월 9일 ~ 17일 (8박 9일)

◆ 코 스 : 인천 - 연길 - 룡정 - 삼합진 - 백금진 - 화룡 - 송선 - 이도백하 - 백두산 - 연길 - 북경 - 인천

◆ 참가 인원 : 교수 1명, 대학생 16명, 국제민주연대 3명, 연변 녹색연합회 2명

프로그램 일정

일시	지역	주제	주요사항
8월 9일(금)	인천-북경-연길		도착 및 짐풀기, 연변 룡색연합회와 만남
8월 10일(토)	연길	지역주민들과의 만남	오전 - 연변대학생 및 교수들과의 간담회 오후 - 연길시 연신소학교 환경사랑 푸름이 중대와 의 만남 및 행사 저녁 - 연길시에서 숙박
8월 11일(일)	연길 룡정 명동촌	우리 민족의 얼과 뉘을 찾아서	오전 - 연길교회 방문 오후 - 대성중학(故 운동주 모교) 및 생가 방문, 룡드레 우물 지명지, 일송정 답사 한연기술학교 방문(조선족 교육현황 및 대학 생 자원봉사자와 대화의 시간) 명동촌(문의환목사 생가 방문) 저녁 - 용정에서 숙박
8월 12일(월)	삼합진 백금진	두만강 환경오염 현장을 찾아서	오전 - 개산툰 펄프공장 답사, 지역 주민들과의 만 남 오후 - 교육 현장 답사, 두만강 지킴이 중대 백금 소 학교 사생과의 우등불 야회 저녁 - 백금에서 민박
8월 13일(화)	화룡시 남평진	두만강지역 동포들과의 만남	오전 - 화룡시 환경보호국 사무일군과의 간담회, 두만 강 지역 주민과의 만남 오후 - 남평진 중심소학 두만강 지킴이 중대 건립의 식, 두만강 지킴이 중대와 함께 두만강 청소하 기
8월 14일(수)	승선 이도백하	두만강상류 를 찾아서	오전 - 무산철광 광사, 오후 - 두만강 지킴이 로인활동 중심 답사, 상류 답사
8월 15일(목)	백두산 훈춘,도문 연길 북경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찾 아서	오전 - 백두산 등정 오후 - 도문(북한접경)을 거쳐 연길로 돌아옴. 저녁 - 북경 도착
8월 16일(금)	북경	북경 관광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중국 자연사박물관 등
8월 17일(토)	북경- 인천	귀국	

조선족의 역사와 삶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이 남 주

1. 해외동포와 조국
2. 조선족 이주의 역사
3. 사회주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조선족
4.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의 변화
5. 맺음말

1. 해외동포와 조국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약 500만 명을 훨씬 넘어 한민족 전체 인구의 6.67%에 이른다. 그리고 해외동포의 대부분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강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수난사의 단면을 보여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세계화라는 추세에 우리 민족이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은 과거 아픔의 흔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 발전의 기반이기도 한 것이다.

해외동포들은 해외에 있다고 해서 고국의 운명에 무관심한 적은 없었다. 과거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을 때 민족해방운동에서 해외동포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한반도에서는 민족운동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해외는 민족운동을 위한 가장 튼튼한 기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으로 위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최근 북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열정은 계속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해외동포 사회의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념적인 갈등은 동포사회를 분열시켜 서로 대립, 반목하게 만들어 안 그래도 어려운 해외에서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동포들은 독재권력의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남북의 화해로 서서히 해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과거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대체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와 조선족 사회와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해외동포들의 대부분이 이민 3,4대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교민들의 국적문제가 그 대표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들에게 민족적 혈통을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커다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러

한 새로운 상황은 한국사회와 해외동포사회가 같이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핏줄이 같다는 이유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해외동포 사회 중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형성 과정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할 것이다.

2. 조선족 이주의 역사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중국 만주(滿洲)지역(현재의 요녕, 길림, 흑룡강성을 포함하는 만주는 서구인들에 의해 불리어진 지명이고 중국에서는 주로 동북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유역 등 조선인들이 많이 진출한 만주지역을 조선인들은 간도라고 지칭하였다)으로의 진출은 1910년 이전, 1910-1931년, 그리고 1931-1945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청조를 세운 만주족은 동북지역을 자신들의 성지로 간주하여 이민족의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중원에서 퇴각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만주족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이 지역의 인삼, 동물가죽 등의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중국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한족들이 대규모로 만주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만주지역의 한화(漢化)가 시작되었다. 18세기 말 길림지역 인구의 80-90%는 한족이었고, 흑룡강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비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돌아오는 형태로 만주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1860년대와 70년대 함경도와 평안도의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으로 조선인들의 만주로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881년 경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수만 만 명을 넘어섰다. 청조는 1880년을 전후로 하여 이미 비합법적으로 진행된 이주를 통하여 한족 등 다른 민족들이 대규모로 만주지역에 정착하게 된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이 지역을 개방하였다. 이후 조선인들의 만주 진출도 더욱 증가하여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질 당시 만주지역의 조선인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1910년 한일합방은 조선인들의 만주진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조선인들은 일제의 수탈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대대적으로 만주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다. 즉 조선인들의 만주로의 이주는 앞 시기와 비교하면 정치적인 원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1-2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는 7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30년에 이르면 만주지역의 조선인의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항일운동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고, 이 지역에서 김좌진, 홍범도 등이 독립군 단체를 조직하고 항일무장투쟁까지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국을 떠나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이 편안했던 것은 아니었다.

주권이 없었던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소작인의 처지를 면하기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만주지역 쟁탈전의 인질이 되거나 심지어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관리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일제의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1920년 훈춘사건과 경신사변은 독립군 기지를 토벌하기 위하여 일본군에 의해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조선인 살육을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 과정에서 청산리전투의 승리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일본군의 군사적 압력으로 독립군 세력은 점차 약화되어 1920년대 말에 이르면 그 대부분이 만주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만주지역의 조선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받는 동시에 일제에 협력하거나 반중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중국인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협약에 의해 조선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25년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미쓰야협정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협정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은 조선인 '투사', 즉 반일조선인을 감시, 체포, 송환하는 일에 협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중국 지방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조선인들을 수탈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1931년은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31년 '9.18 사변'을 일으키며 만주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시작하였고, 1932년 부의(溥儀: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내세워 만주국(滿洲國)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웠다. 즉 일제의 지배가 한반도에서 만주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만주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1930년대 초 조선의 농촌 30만 세대(150만 명)를 이주시키는 15년 계획을 세웠다. 조선인들의 만주로의 집단이주는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만주의 조선인 수는 1930년의 약 60만 명에서 1942년에는 150만 명, 1945년에는 약 1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해방 후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귀국을 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질 때 그 수는 약 110만 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 시기의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초기의 이주와는 달리 주로 한반도 남부 출신이 많았고 정착 지역도 연변 등의 간도지역만이 아니라 보다 북쪽의 흑룡강성 지역으로 확산되었다(현재 동북지역 조선족들의 출신지역의 분포는 대체로 한반도를 압록강과 두만강을 축으로 하여 뒤집은 것과 같다고 한다).

일제 지배가 만주지역을 확산되면서 이 지역 조선인들의 민족운동 성격도 크게 변하여, 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이 사회주의적 경향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당시 전세계 공산주의운동을 지도하던 코민테른은 일국일당의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만주지역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반일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만주지역의 공산주의자는 약 2,000명 가량 있었는데 그 중 조선인이 90퍼센트 이상이었다. 군사적으로는 1935년 중국공산당이 조직한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連軍)에 조선인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역시 1940년대에 이르면 만주지역의 기반을 상실하고 북만주나 시베리아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45년 이후 북한의 지도부가 되었으며 일부는 중국 조선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45-9년 사이의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동북지역은 양 세력의 운명을 결정한 가장 중요

한 전략적 지역이었는데,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여 이들이 동북 지역은 선점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는 점이다. 항일운동과 국공내전 과정에서 만주지역의 조선인들의 공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조선인들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사회주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조선족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몽고공산당에 의해 독립된 외몽고와 국민당의 통치를 받는 대만을 제외한 과거 청조의 영토를 대부분 계승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문제가 영토 내의 소수민족 문제였다. 중국 정부의 분류에 의하면 중국에는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들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변방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상징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설립과정에서 중국공산당 혹은 국민당을 막론하고 중국의 중앙권력은 이들 지역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배를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크게 강화시켰던 근대국가의 특징이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서구 열강 등의 아시아 진출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수민족의 권한을 부정하고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이나 공산당 모두 점차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수민족의 존재와 이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에 국가적 통합과 소수민족의 자치권 사이의 긴장은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중국은 당시 의회 역할을 하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정된 공동강령에서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와 민족문화에 대한 권리 등을 새로운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1954년 제정된 헌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1952년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을 제정하여 자치구(自治區: 중국의 省급에 해당하는 자치단위), 자치주(自治州: 자치구보다는 하급이고 자치현보다는 상급인 자치단위), 자치현(自治縣) 등의 자치지역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90년 현재 중국에는 5개의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0개의 자치현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역사는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내에서는 1956년 농업, 공업,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좌경적 경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57년에는 주로 중국 공산당 외부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우파투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66년에는 당내의 지도부를 겨냥한 문화대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계급투쟁을 다른 무엇에도 우선하는 원칙으로 삼았고, 이에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계급투쟁에 대한 반대하는 우경적인, 혹은 반혁명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소수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봉건적인 것으로 공격을 받아 많은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족의

최고지도자였던 주덕해(朱德海)도 문화대혁명 시기 정치적 박해를 받고 1972년 사실상 연금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주덕해사건, 특무사건 등 4개의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박해를 받고 사망한 조선족만도 2,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 물론 문화대혁명 시기 정치적 박해가 소수민족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나, 이 시기 소수민족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거나 후퇴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좌경적인 정책은 1976년 모택동의 사망으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민족간의 평등과 민족의 자치권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민족구역자치법이 제정, 반포되면서 민족자치의 법적인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민족구역자치법에 의하면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자치정부의 수반은 소수민족 중에서 선출하고, 소수민족의 언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며, 자치정부가 민족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례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던 것은 아니다. 현재 티베트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민족과 중앙정부 사이의 정치, 문화적 마찰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우선 중국 소수민족정책 자체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는 소수민족 간부를 많이 등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다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적 권위와 정치 권력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족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속에 소수민족인 분산된 작은 섬처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수민족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1990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소수민족은 9,0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점하였다. 이는 1953년 3401만명에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이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 11억 3천만 명의 8%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장족(壯族)으로 약 1,550만 명이고 조선족은 192만 명으로 소수민족 중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이다. 조선족은 비교적 최근에 중국에 이주하기 시작하였지만 다른 토착 소수민족이나 한족과 커다란 충돌이 없이 정착을 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비교적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다.

중국공산당이 동북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면서 조선인들의 국적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국적문제는 주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던 토지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만주의 조선인들은 한반도를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이미 만주지역에서 생활과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갖지 못할 경우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여러 차례 조선인들에게 중국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토지를 분배하고 토지소유권을 준다는 정책을 만들면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당시 지방정부의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민자지역 내에서 여러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조선인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1952년 민족구역자치제에

의해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립되고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이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자치지역의 하나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내몽고 자치구(1947년), 자치주 중에서는 청해옥수(靑海玉樹)장족자치주(1951년)만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앞서서 민족자치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하급의 민족자치단위인 자치현 중에서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앞서 지정된 것은 7개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많은 조선인들이 항일운동과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과 연합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던 정치적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밖에도 조선족들이 동북지역의 주로 유목과 수렵을 주로 하였던 동북지역에 처음으로 논농사를 도입한 점도 커다란 마찰 없이 동북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즉 한족이나 유목민족에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동북지역이 현재 중국의 최대 농업지대의 하나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조선족인 것이다. 조선족들 다른 민족들에 비해 농업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높아 다른 민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조선족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4.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 조선족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개혁개방정책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계급투쟁 우선주의에서 경제발전 우선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 경제는 국유화에 기초한 계획경제와 자립경제론에 입각한 폐쇄경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내부적으로 시장경제가 점차 계획경제를 대체하였고, 1992년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을 주장한 이후 본격적인 시장화 개혁과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과거 필수적인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제한적인 무역이 대외경제교류의 주된 내용을 이루던 것에서 시장경제 국가들과 무역, 투자 등의 경제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WTO 가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경제는 폐쇄적인 계획경제에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경제체제의 변화는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배금주의의 만연, 빈부격차, 부패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개혁개방은 백년 동안 동요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덩소핑의 말에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개혁개방은 중국 사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공업화, 도시화이다. 큰 틀에서 보면 개혁개방이란 농업사회에서 현대적 공업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연변지역의 총생산액 중 농업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14.2:50.6:35.2) 산업구조의 변화

는 노동력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와, 연변지역에서 농업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50:22.5:27.5). 이에 따라 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에 기반하였던 조선족 공동체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조선족 사회의 경우 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1992년 한중수교와 한중교류의 확대이다. 한중수교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고, 인적 교류의 길이 확대되면서 조선족들에게는 다른 소수민족들이 가지 수 없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늘어났다. 산둥성 및 동북지역 등 중국의 연해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은 조선족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족들의 동북지역을 벗어난 새로운 지역으로 대량 이동이 시작되었다. 1997년 이미 동북지역을 벗어나 산해관(山海關)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의 수는 20만 명을 넘어 섰고 2000년 6월 말 현재 한국 내의 조선족 수는 합법체류자 8만 명 등 총 128,000명(불법체류자 48,000명 포함)에 달한다. 조선족의 이동현상은 과거 조선족 집거지역의 인구를 크게 감소시키면서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한족들의 조선족 집거지역을 대거 유입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1953년에는 60.17%이었으나 2000년에는 40% 이하로 감소하였다. 특히 조선족 이동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족 집거촌은 우리 사회의 농촌처럼 젊은 층이 이탈하고 노인과 아동만이 남으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조선족의 이동은 현재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민족교육의 존속 여부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젊은 층의 외부유출현상이 심화되면서 출생률의 감소 현상과 함께 인구 구성도 기형적으로 변화되면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것은 초등, 중등 교육이다. 조선족은 일제의 탄압을 받던 시기에도 항일운동가에 의해서 주도된 교육사업만은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었다. 연변지역에 세워진 사립학교가 1911년에는 19개 였고, 1926년에는 156개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에 건립되기 직전에 세워진 연변대학의 경우는 중국에서 첫 번째의 민족대학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조선교 소학(우리의 초등학교), 초중(우리의 중학교)이 민족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얼빈 시만도 현재 60여 개의 조선족 소학과 16개의 조선족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있으며 연길시에만 77개의 조선족 소학교가 있어 우리말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사업의 결과 조선족들은 중국 내에서도 언어를 유지하고 민족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중국 56개 민족 가운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민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민족학교가 학생수의 감소로 문을 닫게 되면서 민족교육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민족학교의 감소는 남아 있는 조선족 학생들도 한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민족교육의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현재 민족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르는 학생 수의 감소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든 열악한 교육 환경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 문제는 현재 소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4-5년 후에는 초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개방기에 진행되었던 젊은 층의 유출이 출생률에 미친 영향이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하얼빈 시의 60여 개의 조선족 소학 중에서 학생수가 100명을 넘는 학교는 19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길 시의 소학의 경우는 학생 규모가 1,000명을 넘는 등 이보다는 상황이 좋으나 최근에는 졸업생과 신입생의 차이가 100명이 넘는 등 역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학교의 존폐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동북지역에서는 민족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족 학교를 통폐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과거보다는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환경의 변화로 민족교육은 교육의 질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학교의 관리자들이 보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원과 설비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족 학교의 경우도 모두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규모가 조선족 학교보다 크고, 중국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교원과 설비를 빠르게 개선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선족 학생들이 한족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어차피 중국에서 살 바에야 한어도 더욱 잘 배울 수 있고 다른 교육 조건도 비교적 좋은 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도시에서의 민족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모를 따라서 도시로 이동한 학생들의 경우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단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이 한족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변 동포들 가운데 고국의 언어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도 민족언어를 상실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육을 지킬 수 있다면 개혁개방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는 조선족 사회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반이 붕괴된다면 지금 조선족 사회가 겪고 있는 시련은 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5. 맺음말

조선족은 그 사람들의 국적이 어떻든, 그들의 신분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한국 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법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유

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발생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법적인 신분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고 교류할 때 현재 나타나는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조선족의 역사와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이를 위한 조그만 출발점이다. 최근에는 그 관계가 소원하기는 하였지만, 조선족은 다른 어떤 지역의 동포들과 비교하여도 조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동포들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그들의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의 차이, 문화적 차이가 그들에게 전혀 부끄러운 것은 아니며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는 더욱 될 수 없다.

참고문헌

- 이채진, 『중국 안의 조선족』, 청계연구소, 1988년.
- 정신철, 『중국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신인간사, 2000년.
- 최철·이광규,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집문당, 1998년.
- 현룡순 외, 『조선족 백년사회1,2』, 거름, 1989년.

새 천년에도 2백만 조선족 사회는 존속할 수 있을까?

자주적 민족의식 소멸된 '문화의고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모국관과 정치관 바로 세워야

심양요녕신문 편집주간 계 광 현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 조선족사회는 일대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인구위기', '혼인위기', '교육위기', '인재위기', '정신위기' 등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외부에 '조선족 사회는 무너지고 있다' 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조선족 사회 내에서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은 사실 그대로이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동포사회의 인구마이너스성장과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족 노총각부대'는 한국의 흠아비족을 무색케 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조선족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조선족 유지들과 학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경중을 울리고 있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필자가 「중국조선족공동체연구」(연변교육출판사 출판)에 발표한 김종국, 안병렬, 리홍우, 최상룡 등 학자들의 논문과 그들의 관점에 공감하면서 나름대로의 위기원인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문화의 힘이 민족운명을 좌우한다

지난 세계사를 살펴보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민족이 소유한 물리적인 힘과 교육수준, 민족의식 등 문화적인 힘, 이 두 가지 중에서 문화적인 힘이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유대민족의 역사, 중국의 만족, 몽골족의 역사가 바로 그 예이다. 중국 대륙에서 각 민족의 대결과 융화는 하나의 '문화결투'였다. 최종적으로 수백년간 지속되어 온 민족대결은 문화의 힘에 의해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13억 인구의 0.15%밖에 안되는 소수민족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소수민족의 평등권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조례와 중국공산당이 제정한 민족정책상 여러 가지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지극히 관용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런 법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명한 소수민족정책이다. 물론 이 정책적 보장이 주어지는데는 우리의 선조가 이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투자했다는 전제가 있다. 그리고 2백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민족공동체이다. 또한 한반도라는 고국의 존재 역시 우리 민족의 생존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물리적 요소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의 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문화의 힘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문화의 현주소는 '문화파탄'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중문화 속에서 사는 이민민족이다. 하나는 모국에서 가지고 온 고유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정착하면서 흡수하기 시작한 중국의 문화이다. 고유의 민족문화는 5천년간 존속해온 전통문화이고 중화문화는 1백여 년 전부터 흡수하기 시작한 새 문화이다. 중국 조선족의 1백여 년 전부터 흡수하기 시작한 새 문화이다. 중국 조선족의 1백년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조선족은 양측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상호인정, 상호보완, 상호융화의 과정을 추진해 왔다. 그 시대 우리민족의 역사의식은 건전했고, 전통문화우세를 잘 활용했으며 진취적 자세로 중화문화를 대거 흡수하여 우리 민족문화와 융화시켜왔다. 또한 우리 민족은 56개 민족 중 가장 충실한 삶을 영위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았다. 그 시대에 뛰어난 조선족의 위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의 힘이었다.

문화대혁명이 몰고온 문화파탄

그러나 세계 역사상 불가사의의 소위 '문화대혁명'이 터지면서 우리는 '문화의 중세기적 비운'을 맞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은 사실상 '문화대파탄'이었으며 인간문명의 역사적인 대후퇴였다. 이 와중에 조선족 문화는 이중적인 파탄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이 시기 우리의 고유 문화는 이질화되어 그 맥이 끊어졌다. 지금 조선족 학자들은 조선족 특색의 문화를 운운하면서 우리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와도 다르고 조선의 문화와도 다른 개성적 문화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이런 견해에 공감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문화혁명 시기부터 조선족 학교에서는 교육내용을 한어로 바꾸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의식을 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시대에 자라난 조선족 3, 4대들은 민족뿌리의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랐으며 바야흐로 조선족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들은 사실상 중국문화 동화직전에 와 있다.

조선족 3, 4대들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의 말과 글을 사용할 줄 아는 조선족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민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백지나 다를 바 없는, 기본상식조차 모르는 상태이다. 자연히 이들은 민족자부심과 민족에 대한 그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조선족학교에서는 어느 구석에도 학생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한 핏줄의 위인상을 찾아 볼 수 없다. 반면에 한쪽은 물론이고 서구의 유명한 정치인 과학자 같은 위인상들은 어느 학교의 전당에나 줄줄이 모셔져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주적 민족성을 띤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조선족 특색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인가.

민족역사 모르는 조선족 3, 4대

이 불행한 시기에 중화민족에 대한 진취적인 흡수과정도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는 두 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과 두 개의 문화가 상충하는 와중에 피해자

가 된 것이다. 물론 이는 복잡한 역사적 원인에 기인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족으로 하여금 '문화의 고아'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즉 조선족의 문화정신력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세기에 걸친 우리의 중국 정착사는 우리가 두 가지 문화원천을 공유하면서 상호인정, 상호보완, 상호융화 할 때만이 우리 민족이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유의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면에서 올바른 모국관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공민으로서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인 조선족임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정의에서의 우리의 조국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조선족의 오늘의 위기는 근원적으로 문화의 위기이다. 앞으로 조선족 4, 5세대들의 민족문화 전수여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를 재건하면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민족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오늘의 위기는 조선족의 사멸로 종말 짓고 말 것이다.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2001년 5·6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그들을 동포라 부르지 말자'

-동북 3성을 돌아보고

CBS 프로듀서, 국제민주연대 편집위원 이 광 조

이번 취재의 화두는 '함께 사는 연습'이었다. '동포'라는 다분히 감상적인 단어로는 도저히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무지와 오해, 편견들. 분단된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들'은 백년이라는 시간동안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 왔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취재에 나선 동기였다.

중국의 첫 방문지였던 심양. 심양에서 마주친 반응은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는 더 깊다'는 느낌이었다. "혹시 한국정부에서 '우리는 중국정부를 상대로 돈 벌 수 있으니까 조선족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모험입니다. 갈등이 더 커지면 커졌지 없어지지 않아요".

중국동포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은 배신감, 굴욕감, 절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비자를 받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영사관 앞에 줄을 서야하고 마치 죄인을 심문하는 듯한 영사관 직원들의 태도에 굴욕감을 느끼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비용에 그들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한국인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겪는 불편과 고역이 아마 이런 것이리라.

중국동포들의 이런 정서는 비단 한국정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빗쟁이를 피해 다니는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과 빚을 갚기 위해 '도둑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기 결혼 피해자들,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웃집 처녀가 한국으로 시집가는 것을 지켜보는 농촌 총각들. 이들에게 한국사람은 더 이상 따뜻한 동포의 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한국인이라 그저 자신들보다 조금 잘사는 사람일 뿐. 동포라는 정서적인 유대는 배신감을 더 키웠을 뿐인 것 같았다.

공동체의 붕괴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반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한중수교 이후 한국 진출이 큰 물결을 이루면서 중국동포들이 '한국병'이라 부르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선족'이라는 이름은 중국동포들에게 자랑스러운 호칭이었다. 높은 문화수준과 소득수준, 한때 대학 진학률에서 한족을 앞지를 정도로 앞서 나갔던 교육수준, 인정이 살아있는 농촌 공동체. 하지만 '조선족'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은 '한국병'과 함께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다. 머느리감 하면 으름으로 꼽히던 '조선족' 여인들의 명성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고 돈벌이에 급급한 청년들은 모두들 고향을 떠나버렸다. 사람이 떠나자 민족교육을 지탱하던 학교도 급속하게 사정이 악화되어 해마다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달고 조선족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물론 200만 중국 동포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는 한국과의 교류 때문만은 아니다. 80년대 말부터 중국이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접어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이 산업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 3성에 집중돼 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한국과의 교류와 함께 시작했고 그들에게 발전은 곧 한국행을 의미했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일년동안 벌어오는 돈이 연변 전체 재정의 두 배가 넘는 현실이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동북 3성의 중국동포들에게는 한국이 경제발전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셈이다.

이런 현실은 동북 3성이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민공사운동과 그에 이은 문화혁명 시기동안 동북 3성은 정치적인 이유로 산업화에서 배제되었다. 미국, 소련과의 제 3차 세계대전을 불가피한 숙명으로 여겼던 모택동의 노선 때문에 변방에는 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동북 3성의 중국동포들은 시장경제로의 발전에서 출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이 중국동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 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발전이 상당부분 화교자본의 투자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뒤이은 실망을 더욱 증폭시켰다. 전세계 화교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포들을 이용하고 추방하는 한국의 행태는 불만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피해의식과 기대를 걸었던 모국, 한국에 대한 실망은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민족적인 정체성의 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대도시로 유입된 인구들은 한족문화에 동화되고 있고 일부 동포들은 한국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여전히 한국을 동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나라 잃은 백성의 유민의식'이 조선족 사회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한 동포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

동북 3성의 중국동포 사회는 분명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변화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지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동포들은 스스로의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환상을 스스로 깨 나가고 있었다. 연길에서 만난 연변대학교 사회과학원 김중국 선생의 말은 지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중국동포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한중수교 이전에는) 한국사람들은 자본주의 자산계급의 착취를 받아서 그러다

가, 나중에 직접 가서 보니 천국 같다가, 또 그 후에는 거기도 잘사는 사람 있고 못사는 사람 있고 우리도 시장경제 해보니까 사기꾼도 나오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사기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국 사람들이) 적지 않게 좋은 일도 하고 연금도 보내오고 패스카마호 사건 해결하는데도 동포들에 대해서 변호를 제대로 해 주고... 이래서 지금 보면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괜찮다".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도시에 새로운 집단 거주지역을 만드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가하면 세계화 시대에 맞게 조선족 학교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모국에 대한 환상을 갠 지금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 한국이 외국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일관된 원칙 아래 노동력을 수입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 자신들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쓰면서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치라는 것. 이것은 '동포'라는 감성적인 유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 노동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지켜야 할 지극히 보편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할아버지의 나라, 고향, 친척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굳이 중국동포들이 이주한 사연과 독립운동에 공헌한 역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내는 그들을 '동포'라 부르지 말자.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동북 3성에서 만난 동포들은 모두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서 남북이 통일 돼야 남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모두 만날 수 있을 텐데...'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백년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잃은 설움을 잊지 않고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자랑스럽게 지키며 살고 있다. 그리고 갈라진 모국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에게는 분단된 남북한의 통일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설움을 푸는 한판 굿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적은 다르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과 평화롭게 사는 길을 찾지 못하고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2001년 10·1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배움'을 갈망하는 두만강의 동포아이들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 유 진

추석 무렵이었다. 집으로 내려가는 표를 못 구해 한바탕 난리를 쳐야겠다는 걱정도 잠시, '부모님께 뭘 사 갈까'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명절은 이래서 좋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올 해는 그런 설레임과 함께 유난히 눈에 밝히는 얼굴들이 있었다. 바로 두만강 사람들이다. 그들 중 몇 명이나 한국에서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휘영청 달 밝은 추석을 보낼 수 있었을까?

가족 걱정에 애타는 사람들

2001년 여름, 두만강 환경조사를 위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개산툰에서 백두산까지 약 10여일 동안 두만강을 따라 걸었다. 두만강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도 놀라웠지만 두만강 너머 돌팔매질 거리에 있는 북한 사람도, 중국 쪽 마을에 살고 있는 조선족도, 그리고 남한에서 온 나도 모두 같은 모습에 같은 언어를 쓴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머리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현실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마치 비무장지대 녹색순례 때 철망 앞에서 분단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중국 쪽 두만강변에 자리잡은 대부분의 마을은 중국동포 마을이다. 여기선 손님이 찾아오면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닭을 잡고 두부를 만들어 내놓는 일이라고 했다. 덕분에 조사하는 내내 맛있는 닭죽과 삶은 달걀, 두부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사람도 나무도 음식도 그리고 산과 들에 사는 야생동물도 낯설지 않은, 마치 강원도 두메산골에 생태조사를 나온 듯했다.

도시로, 도시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연변과 마찬가지로 두만강변에 자리잡은 작은 중국동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룻 밤씩 민박을 했던 마을에선 한국으로 돈벌이를 나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행여 불법체류자로 잡히지 않았는지 조바심에 마음 졸이며 사는 동포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 두만강에 대해 물으려고 발가는 한 아저씨에게 말을 붙였더니, 대뜸 자식 대학 보내려고 한국으로 일하러 간 아내가 몇 달 째 소식이 없다며 어떻게 좀 연락할 수 없겠냐고 통사정한다. 서울 간 딸한테 전화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요즘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하냐 등등, 서울서 온 사람들한테서 행여나 식구들 소식을 들을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에 서울의 온갖 지명 이름이 다 나온다. 구로, 종로, 영등포,..... 이거야말로 '서울서 김서방 찾기'다. 한국사람들은 모른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지.

마을과 함께 생겼던 학교들, 지금은 모두 부서져

마을마다 부서진 큰 건물은 죄다 '학교'다. 중국동포 마을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학교라고 했다. 그만큼 중국동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만큼이나 대단했다. 당장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라면 쌀이라도 팔 심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학교에 학생이 없다. 특히 농촌의 학생 수 감소는 용정이나 연변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

백금소학교의 김웅기 교감은 "1992년까지 각 촌 단위마다 학교가 있었다. 그 때 당시 150명이던 학생이 해마다 20명씩 줄더니 이제 78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난 해 1학년 입학생이 9명인데 올 해는 입학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김웅기 교감은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도시화도 원인이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큰 이유란다. 마을마다 장가를 못 간 총각들이 수도룩하다. 한 해에 백금향 전체를 통틀어 출산율이 1~2명, 그 아이들이 여기에 산다고 했을 때 6년 뒤 소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1~2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2년에 한번 입학생을 받고 있는데, 5~6년 뒤에도 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돈 없어 의무교육도 채 못 받아

70년대만 해도 백금에는 중학교가 한 학년에 두 반씩 있었다. 지금은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려면 용정 제1중학교로 가야 한다. 용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졸업생의 절반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한다. 의무교육 9년 중 6년 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이다. 입학금 1천 위안(약 16만원)을 농사짓는 변방의 시골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다. 그나마 용정으로 공부하러 갔던 학생들의 절반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시골로 돌아온다. 학비와 기숙사비를 낼 돈이 바닥났거나 수업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예전 두만강 물이 맑았을 때 조개가 많아 '합전'이라 불렀던 마을에서 밭을 매고 있는 두 분의 할머니를 만났다. 정순자(73세) 할머니는 두만강 홍수에 소와 집을 다 잃어 지금은 생활고가 심하다고 한다. "콩 심고 옥수수 심어 농사지어도 수입이 없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며 "용정중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농사일을 거드는 손주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신다. 못 배우는 '한', 우리가 공부를 절실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속타는 마음을 심분의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백금소학교에는 용정시에서 파견 나온 교원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파견 나온 교사들의 월급은 300위안(약 6만원). 이제 막 사범학교를 졸업한 옛돼 보이는 여선생님이 그래도 자기는 파견교사라도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조선족 학교가 사라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사범학교를 나와도 교단에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사범대학을 정년 퇴직한 후 지금은 <연변록색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송(63세)씨는 제자들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도 택시운전수, 식당 종업원 같은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고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교단에 설 수 없다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런 선생님께 그래도 학교를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차마 건넬 수가 없었다.

중국에 간 한국인들이 돈 쓰는 곳은

북흥 희망소학교에는 모두 98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아침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그네도 타고, 축구도 하면서 뛰어 놀고 있었다. 조용한 시골학교에 외부인의 방문이 신기했는지 대답도 잘하고 노래도 부른다. 그렇게 그 아이들이 뛰어 노는 운동장 한가운데 한 일본인이 400만엔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굳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꺼내지 않더라도 한국사람들 참 돈을 쓸 줄 모르는구나,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변에 온갖 환락문화를 심어놓고, 몸에 좋다는 웅담과 각종 정력제를 사는 데는 연변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돈을 펄펄 쓰면서 정작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조선족 어린이들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다.

두만강 하면 자연스레 아버지 세대의 애창곡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을 연상하게 된다. 두만강에는 그러나 '푸른 물'도 '뱃사공'도 없다. 그리고 연변은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이야기하는 '꿈'과 '환상'의 나라가 아니다. 두만강에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된 강물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중국동포들이 있다. 또, 못 견디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중국동포 아이들이 있다. 또랑또랑한 눈망울의 희망소학교 아이들이 노래한다. "시계는 똑딱똑딱, 우리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합니다." ♪♪

<이 글은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2001년 10·1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여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1. 시 차

중국의 전 지역은 한국보다 한시간 느린 북경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동쪽 끝인 흑룡강성 지역과 중국의 서쪽 끝인 서역의 카슈가르 지역은 실제로는 약 3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으나 공식적인 시간은 북경시(時)를 사용하고 있다.

2. 화 폐

중국의 화폐는 인민폐(런민폐-人民幣)라고 불리우며, 단위는 위엔(元)이다. 통용되는 화폐는 지폐로 100원, 50원, 10원, 5원, 2원, 1원권이 있고, 1원 동전이 있다. 그리고, 그 밑의 단위로 각(자오-角)이 있는데 10각은 1원에 해당한다. 최근에 새로운 디자인의 20원짜리 지폐가 추가되었다. 한국에서 환전을 해 가는 경우 100원짜리 지폐와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잔돈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적은 금액의 물건을 사고 고액권을 내는 경우 잔돈을 받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암달러 상인들을 만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달러에 대한 구매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달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환율은 은행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런 암달러시장에서 환전을 할 경우에는 가짜 돈을 끼워 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전 압

중국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전압이 220V이다. 3상 전원 플러그가 일반적이다. 플러그의 모양이 한국과는 좀 다르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4. 여행 가방 꾸리기

여행을 몇 번 다닌 사람이라면 '짐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을 몇 번씩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출발하기 전이 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더 가져가고 싶은 게 사실이다. 배낭 속에 들어간 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짐들은 진짜 여행을 힘들게 만드는 짐이다. 짐을 싸기 위해서는 일단 여정을 생각하고, 다음에 여행가는 곳의 기후를 생각해야 한다.

가. 옷 챙기기

긴 여정이라 해서 굳이 옷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속옷은 5일 분 정도만 준비해 가면 별 문제가 없다. 아무리 열악한 여행이라 해도 5일에 한번쯤은 물이 나오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흐르는 물에 비누칠해서 한번 쓱 뽀뽀 다음 방 어디에 척 걸쳐놓고 다음날 다시 입고 가면 된다. 지금은 여름이니 기본적으로 속옷과 양말은 4~5set정도, 반팔 T 3~4장 정도, 긴 면바지 둘에 반바지 하나, 그리고 가벼운 긴 팔 옷옷 하나쯤 가져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북경은 한국보다 3도에서 ~4도 가량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여름에 백두산 지역을 여행할 때는 두터운 초겨울 잠바를 준비해야 된다. 백두산 지역은 여름에도 쌀쌀하다.

나. 화장품 / 세면도구 / 액세서리

여름에도 건조한 곳이 많으므로 가벼운 로션정도는 필수. 그러나, 아주 건조하고 물도 좋지 않은 중국 여행을 하면서 두꺼운 화장을 하는 것을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어지간한 호텔 등에는 칫솔, 치약, 샴푸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간단한 세면도구는 챙겨가야 한다. 신발은 당연히 최대한 편한 것으로 신고 가는 것이 좋다.

큰짐을 풀어놓고 여권이나 귀중품을 넣어 다닐 수 있는 간단한 배낭이나 어깨 가방은 필수이다.

5. 치안문제

공안천국(公安天國)이어서 여자 혼자 여행해도 안전하다는 중국의 치안은 이젠 옛말이다. 우리 나라의 치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만 우선 중국에서 택시를 타보면 중국 치안을 실감할 수 있다. 택시강도로부터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유리벽과 간이 창살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여행하는 동안은 도난당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두고 도둑을 맞으면 곤란한 여권, 현금, 항공권 등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관광 명소나 시내버스 안, 쇼핑가 등의 복잡한 곳은 소매치기와 도둑을 경계해야 한다. 관광객 티를 내거나 보석이나 유명 브랜드상품을 착용해 도둑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짐은 작게 하나로 정리해서 들고 다니고, 가방과 물건 등은 되도록 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행중 귀중품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에서는 잃어버린 귀중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시 찾기 어렵다.

6. 여권을 잃어 버렸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재발급절차를 밟는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1)여권번호 (2)발행연월일 (3)여권용 사진 2매 (4)현지공안국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권발행번호와 발행연월일을 미리 수첩에 메모해 두거나 여권 맨 앞장을 복사하여, 사진 2매와 함께 여권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여권 재발급에는 보통 1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인지대로 US\$62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의 여행자일 경우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남은 일정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서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7. 여행시 있으면 편리한 것

- * 여권, 여행자수표(T/C)의 카피본 - 분실시 처리가 빠르다.
- * 비닐봉투, 종이봉투 - 작은 짐이나 젖은 물건을 싸기에 편리하다. 중국은 국영기업에서는 봉투도 돈을 내고 사서 써야한다.
- * 화장지 - 중국의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지가 준비되어있지 않다. 유료화장실을 사용할 때 돈 받는 곳에서 휴지를 주기는 하나 사용하면 아프다. 따라서 여행용 일회용휴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 신용카드 -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는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혹시 비상시를 위해 가져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 조그마한 물병 - 중국의 물은 석회성분이 많아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시 배탈이 난다. 따라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물을 얻어 가지고 다닐 조그마한 물병이 있으면 좋다. 없다면 현지에서 광천수를 사서 마시고 그 병을 물병으로 사용하여도 좋다.

8. 화장실

중국의 화장실은 매우 유명하다.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화장실은 유명하다. 이제 그 유명한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가. 유료화장실

중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유료로서, 수도 북경의 변화가인 왕부정거리나 상해의 남경로, 등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거리의 화장실이나, 대부분의 백화점 역시 유료이다. 무료 화장실은 호텔, 식당, 상점 등이며, 비교적 청결한 편이다.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으며, 유료인 경우 매표소에서 화장지를 무료로 조금 준다.

나. 유료화장실 이용방법

먼저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여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있는 검표원에게 표를 제시하고 들어간다. 화장지가 필요하면 "웨이성즈"라고 말하여 화장지를 얻는다. 사용시 약간의 통증유발

다. 화장실의 종류

- * 문 없는 화장실 - 문이 없고, 있어도 매우 작아 안이 다 보인다.
- * 도랑 화장실 - 길다란 도랑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발자국 모양의 페인트만 칠해져 있어, 앞 사람의 엉덩이를 보면서 볼일을 본다.

라. 여성이 이용할 만한 화장실

호텔화장실에 간다.

우의상점이나 식당의 화장실을 이용한다.

단체여행일 경우 안내원에게 문의하여 간다.

반드시 화장지를 가지고 갈 것

9. 택시

중국을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다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할 때가 많이 있다. 중국은 각 지역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으므로 북경의 택시요금만 알아 보겠다.

가. 택시의 종류(북경)

빵차(맨빠오차, 다마스형태) - 99년 3월부터 폐지

중형차(승용차형태) - 기본요금 12원/10KM, 2원/KM

개미차(하리차, 티코) - 기본요금 10.4/KM 1.6원/KM

나. 택시 승차 전 주의점

- * 현지사람에게 어디까지 얼마인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KM당 가격이 오르므로 소요되는 요금은 비슷하기에 차이가 많이 나면 돈 것이다.
- * 신분증명서가 없는 택시는 타지를 않는다.
- * 중국은 야간에는 조수석 앞에 앉지를 못하므로 뒤에 앉는다. 보통 야간에는 친구나 부인을 조수석에 앉히고 영업을 하는데 이런 차량은 가능한 한 타지 않는다.
- * 역이나 터미널 앞에 정차하여 있는 택시는 타지를 않는다.
- * 작은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승차하기 전에 운전사와 협상하여 가격을 정한다

다. 택시 승차 후의 주의점

- * 미터기를 반드시 꺾게 만든다.
- * 목적지를 말하고 운전수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중국어로 "뜨다오마?"라고 물어보면 된다.
- * 높은 요금을 청구할 경우 택시회사 전화번호나 운전사의 신분 증명서의 번호를 적는 체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면허증을 따기가 매우 어렵다. 택시운전사들은 면허를 취소당하면 타격이 크므로 두려워한다.